

# 百濟의 特異形土器

金 元 龍

一

世界陶磁全集(阿出書房)第一三書에 실린 藤澤一夫氏의 「百濟土器·陶器」의 插圖五一 百濟瓦質土器集成圖에 두개의 特異形土器가 들어 있다. 이 土器들은 扶餘發見이라고 하며 本文에는

「深碗形態(番號四〇、本稿圖1의 上)、深杯形態(番號四一、本稿圖1의 下) 外觀은 臺脚이 있는 碗、또는 杯와 비슷하지만 內部는 아래까지 通하고 있어 深碗、深杯 따위로 불려야 할 特異한 形態이며 數例를 實測하였다. 扶餘發見。」

이라고 說明되어있다(P、一九三)。

여기 瓦質土器라고 한 것은 藤澤氏에 依하면 「器表가 대개 黝黑色、器胎는 白色 또는 灰白色이고 精土가 使用된 경우도 많다. 混砂의 粗土가 쓰여진 경우에도 整齊하게 마무리되었고 귀알로 문지러진 경우도 있다」는 土器이다.

器形의 하나는 圖1에서 보듯이 입이 넓고 허리가 좁혀진 香爐 또는 火爐形이며 口緣의 끝이 若干 위로 꺾여 뚜껑받이처럼 되어있다. 그런데 좁혀진 허리部分以下가 外觀은 다리같이면서 內部가 위와 直結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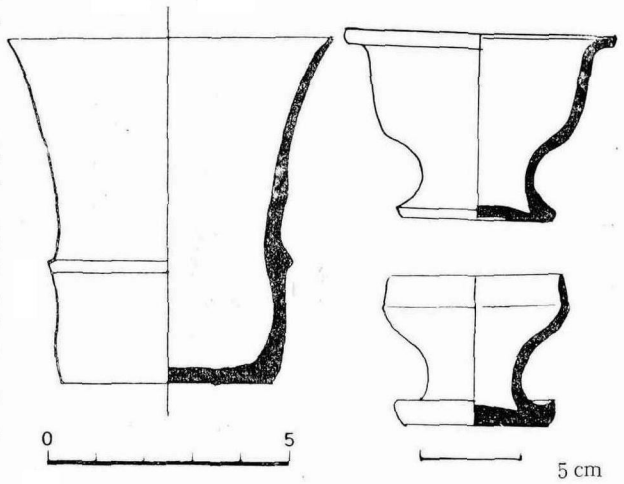


圖1 百濟土器 扶餘地方 圖2 新羅土器杯 安東郡馬洞出土

身部로 되어 위土器와 根本的으로 特徵을 같이 하고 있다. 크기는 높이 七、三 cm、口徑八、四六 cm 底徑七、三 cm이다. 이것은 新羅土器의 土杯(圖2)와 닮은 點이 있고 杯라고 하여도 좋을 것 같다.

二

藤澤氏는 이러한 特異形土器를 以上二例以外에도 數例를 보았다고 하였으며 文面으로 보아 그가 居住하던 扶餘地方出土土器들이라고 생각된다. 圖3은 筆者가 數年前 公州의 市場안에 있는 古物商에서 얻은 것인데 胎土는 고우면서 아주 잘은 모래알이 이따금 섞여 있고 表面은 黑灰色(黝黑色)의 膜이 덮혀 있으나 쓸려서 벗겨지고 白灰色 또는 灰色의 바탕색이 나와 있는 部分이 많다. 구은 火度는 알았던 모양이며 器壁도 얇

고 손톱으로 긁어질 瓦質이다. 形態는 圖 1의 上例와 大同小異하며 넓은 口徑에 허리가 좁혀진 形態이고 內部는 特徵적인 通身이다. 크기는 높이 一〇、二 cm、口徑一五、三 cm、底徑八、二 cm로서 上記二器보다 若干 크다. 圖 1 上의 土器와 틀린 點은 口緣이 外反한 채로 끝났고 口緣안 쪽에 한 줄기 금이 돌아가 턱을 만든 것과 좁혀진 허리가 훨씬 아래쪽 이고 또 縮約이 그리甚하지 않아、花盆으로 쓰려고 바닥에 구멍을 뚫 고 꽃을 심었던 것인데 器壁이 뿌리의 膨脹力을 견디지 못하고 세로금 이 가기 시작해 花盆으로의 使用을 中斷하였던 것이다. 그만큼 弱한 土 器다.

이 土器는 內部에 三ミリ정도 간격을 두고 얇은 줄기가 돌고 있는데 그것이 아래서 위로 연결되어 올라간 것이어서 土器를 돌리면서 빛인가 를 대고 돌려 올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돌림道具는 勿論 물레였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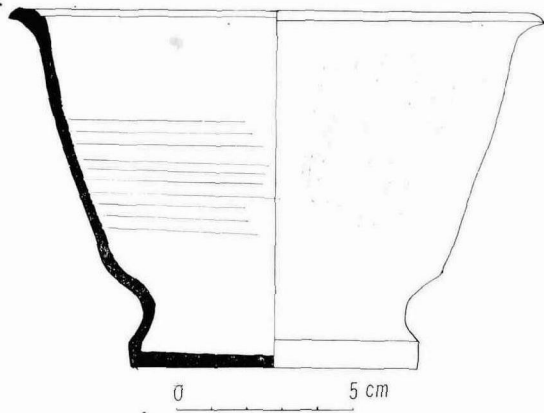


圖 3 百濟土器(公州購入)

생각하는 것이 自然이겠 지만 바닥이나 外壁의 모습은 손으로 빚이고 表面을 문지른 것이 分明해서 간단한 돌림板 같 은 것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여튼 質、 作法등 어딘지 古式이 다. 이 土器가 정확히 어 디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公州附近、鴨 江地域에서 나왔을 것이 라고 생각된다.

三

以上으로 公州、扶餘 地方에서 特異한 形態의 瓦質土器가 나오고 있 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口徑이 높이보다 큰 廣口器이고 臺足이 달린 것 같은 外觀이면서 器內部가 바닥까지 通해 있다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土器에 관한 몇가지 문제중 우선 그 用途 또는 機能문제를 생각해 보겠다. 干先 그 크기가 높이 一〇 cm 以下の 小形이라는 데서 貯 藏器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食器로서의 容器라고 보아야 妥當할 것이다. 그런데 圖面에서 보다시피 內部의 바닥이 바깥쪽으로 패어들어가 그 部 分에 物體가 들어가면 손가락이나 숟가락같은 것으로 들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이것은 飲食物이라도 乾燥한 곡식, 가루따위나 담아야 할 器形 이다. 그것도 담아서 퍼내는 것이 아니라 쏟아 내는 用途로 使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물이나 술따위를 담으면 물그릇, 술잔(술사발)의 機能은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진 허리 는 그럴때 한손으로 쥐거나 두손으로 받아 들기 쉽게 하였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 나 한가지 困難한 것은 그것이 吸水性이 많 은 瓦質土器라는 點이다. 百濟에도 硬陶가 있으니 부디 이런 質의 土器로 飲器를 만들 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가장 可能性 있는 機能은 다른 곡식 容器라는 見解이다. 다음은 그 좁혀진 허리와 그 안까지 내려 오는 器身의 문제이다. 왜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 다. 이 器形이 보여주는 意圖는 容器은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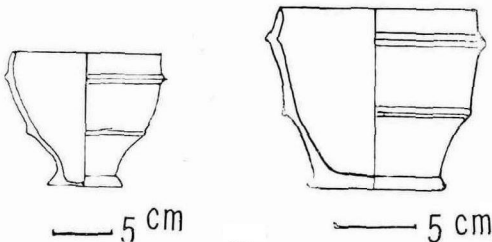


圖 4. 尊形土器 江蘇省下廟墩(龍山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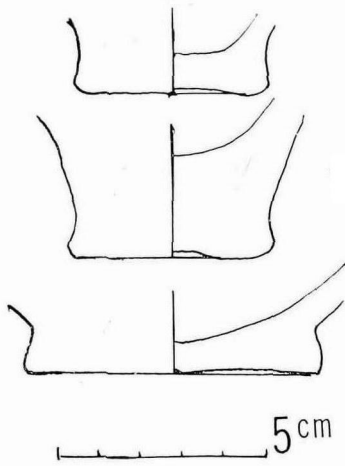


圖 5. 無文土器底部(馬山城山)

極端으로 말하면 그것이 정말 百濟時代의 것인지도 疑問視할 수 있는 存在이다. 그러나 이러한 瓦質土城은 서울 風納洞土城內에서도 硬陶期의 土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경우 이 器形이 公州扶餘地方에서만

이지 않으면서 臺足을 달은 것같은 效果를 얻자는 것이었을까이다.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오는 內部를 가진 土器는 中國에도 日本에도 없다. 中國에는 新石器時代인 龍山期에 이와 비슷한 尊(酒器)形土器가 있다. (圖 4) ① 一見 우리것을 그것과 連結시키고 싶은 恰似한 器形이다. 그러나 中國에서는 그러한 器形은 이때뿐이고 그以後에는 絶無하기 때문에 百濟것을 그것과 連結시킬 수는 없다. 그렇다면 百濟의 이 器形은 百濟自生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생각나는 것이 無文土器의 器形이다. 圖(5)에서 보듯이 無文土器는 바닥周圍를 꼭꼭 둘러서 좁혀 바닥基緣이 若干 벌어지게 만든 것이 特色이다. 여기 百濟土器는 이러한 花盆形 無文土器의 基本形을 조금 더 誇張한 것이라고 말해도 外見上으로는 無理가 아니다. 事實 花盆形 無文土器의 아래部分을 좁혀서 허리를 만들면 이렇게 外觀은 臺足形이 되고 그 臺足形部分도 안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特異形 百濟土器는 前代의 無文土器에서 發展한 百濟自生の 特殊器形이라고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土器의 마지막 問題는 年代이다. 이 形態의 土器는 아직까지 數例가 알려졌을 뿐이며 그런 意味에서 稀少形式이라고 하겠고 또 그나마 確實한 出土地點이나 出土狀況, 構造物을 알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周知하다시피 百濟土器와 新羅土器는 서로 共通된 點을 가지고 있으며 또 相對方에 없는 特殊 面들이 있어, 또 하나의 異形式인 高句麗土器와 함께 그것이 三國의 三國을 形成하는 所以, 即 國家的, 地域的, 文化的 特殊性, 傳統의 差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廳이라고 불리우는 「구멍단지」는 百濟, 新羅에 함께 있지만 「세발 보시기」所謂 三足高杯는 百濟土器에서 밖에 볼 수 없다. 이 「세발 보시기」는 中國楊子江地方에서 流行한 形式인데 百濟의 그것이 中國것과 連結된는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하겠다.

온다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나는 이 器形이 將次 서울地方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充分히 있지만 그 發生地는 公州, 扶餘——即 보다 百濟의 核心地域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는 것이다. 即 首都가 公州, 扶餘로 옮겨진 뒤가 아니라 그以前부터 公州, 扶餘 地方에서 無文土器를 바탕으로 이 地域의 特殊用器形으로 開發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四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特殊機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新羅土器에 흔한 손잡이 달린 杯 卽 把杯나 圖 2 式의 酒杯가 百濟土器에 없다는 事實은 이 特異土器를 酒杯로 보아야 할 가능성을 示唆하기도 하지만 그 甚한 吸水性은 그러한 見解를 排除하기도 한다. 그래서 가장 妥當한 用途는 마른 穀粒의 容器로 되돌아간다. 그러면 이것을 곡식容器로 볼 때 唯一한 機能은 供獻器로서의 그것이다. 結論부터 말하면 祖上의 靈前이나 巫敎의 神前에 놓는 供獻器라고 보는 것이다. 現代의 무당이 占卜師가 하듯이 百濟時代에도 그러한 目的으로 穀食을 담고 床에 올려 놓았던 그릇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러한 儀器일수록 오랜 古代 傳統을 器위에 남겨두는 것이다. 이 容器的 허리를 좁혀 外見이나 臺足같은 것을 만든 것은 그러한 供獻器로서의 威嚴을 갖추려는 意圖에서였는지 모른다.

그것은 하여튼 이 향로形土器도 또하나의 百濟特有土器이며 그러한 特有器形의 存在는 百濟文化內에서의 特有한 機能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分明하다. 그리고 이 향로形土器를 나는 百濟의 土着信仰과 關係되는 供獻器의 一種이라고 推測하였다. 이 경우 佛器로서의 供獻器로 使用되었을 可能性도 勿論 排除할 수 없다. 그러나 이 土器의 特殊한 形態와 構造가 金屬器의 模倣이 아니고 無文土器와 連結되어 있 으리라는 點에서 그 供獻器로서의 性格은 佛敎流入以前에 成立된 것이 고 따라서 土着信仰과의 關係가 보다 오래고 一次的이라고 推測하는 것이다.

以上은 勿論 臆測에 不過하다, 그러나 臆測을 이 段階에서 그대로 燥急하게 發表하는 것은 앞으로 確實한 出土例들이 報告되는 契機가 되고 또 이 土器의 機能에 대해 民俗資料를 通한 敎示들이 베풀어지기를 기대하는 同時 百濟文化研究에 유달리 情熱을 쏟은 畏友 黃壽永博士의 華甲을 祝賀하기 위하여는 資料蒐集未完이지만 百濟것을 들고 나와야 하 겠다는 마음에서였다.

① 南京博物院「江蘇贛榆新石器時代至漢大遺址和墓葬」考古一九六二—三, pp. 129 ~ 131

② 서울大學博物館「風納里包含層調查報告」一九六七年

(서울 大學校 人文大學敎授)